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UNKNOWNNS

가제 : 언노운들

저자 : Shirley-Anne McMillan

출판사: Atom

발행일: 2017년 12월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책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항하는 주체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작가는 많은 혐오 범죄 사건들을 편향된 시선에서만 보도하는 미디어에 대해서도 지적한다.’—피터슨 토스카노 리뷰

* ‘이 책에 담겨 있는 이상주의와 긍정성은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줌과 동시에 유머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독자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자극하는 좋은 청소년 소설이다’—아이리시 타임즈

틸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소녀였다. 그녀는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아빠로 인해 부유한 도심 지역의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학업에 전념하는 평범한 소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 곳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오는 긴장감을 즐기는 특별한 비밀 취미가 있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도시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을 꿈꾸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의 아나키스트라고 불리는 언노운 그룹의 브루라는 남자를 만난 뒤, 그녀는 아빠가 원하는 삶은 자신에게 맞지 않음을 점점 깨닫게 된다.

점점 브루와 밤에 몰래 그를 만나는 일탈에 점점 매력을 느끼고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된 틸리는 그와 함께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접하게 된다. 폐가에서 하는 파티, 사유지와 공유지에 무단 침입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미션 수행 등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낯선 이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활동하는 언노운들의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된다. 70살 정도 되는 노년의 여성 메그가 돌봐주는 이 언노운들은 벨파스트의 버려진 곳에서 거주하며 벨파스트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벨파스트 지역에서 만연한 종교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지역 신문과 미디어에서 보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벨파스트의 신문과 미디어는 차별 받는 자들을 보호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언노운들을 오히려 동네의 분위기를 흐리는 양아치로 묘사했다. 틸리는 어느새 언노운들과의 생활과 저널리스트인 아버지와 자신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삶의 가운데에서 갈등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제 틸리는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녀가 기존의 삶을 유지할지, 언노운들의 편에 서서 활동을 이어갈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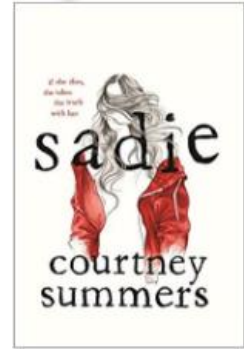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언노운들이 보호하고자 했던 공원의 아이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차별하는 ‘테이그들’과 언노운들을 향한 폭력과 위협은 점점 거세어져만 가는데, 털리는 이들을 위한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것과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치뤄야 할 대가가 죽음일 수도 있다면, 과연 평화는 지켜질 수 있을까?

언노운들은 2017년 북아일랜드의 종파 간의 차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다. 현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북아일랜드의 친영파 개신교 인구의 소수 가톨릭 독립파에 대한 차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픽션으로, 우리는 제3자인 소녀의 시선에서 이 종파 차별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 어디서든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차별 받는 이들을 위해 싸우는 자도 있기 마련이다. 이 책은 두 집단 사이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잣대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별하게 되는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정의를 판별하고 바라보는 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적인 갈등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는 문학적 가치가 높은 소설이다.

<작가 소개>

Shirley-Anne McMillan 작가는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그녀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소설을 썼다. 현재 그녀는 작가로 활동 중이며 그녀의 다른 두 책, THE GOOD HIDING과 WIDOWS' ROW는 다양한 문학 리뷰 단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제목 : SADIE
가제 : 새디
저자 : Courtney Summers
출판사: Wednesday Books/St. Martin's
발행일: 2018년 9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스릴러



- * 스페인어, 프랑스, 캐나다(프랑스어), 폴란드,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러시아 판권 계약
- * 초판 주문 분량 75,000부
- *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독자를 위한 소설. 주인공이 흥터처럼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작 『The Woman in the Window』의 작가 A.J.핀
- * “눈길을 사로 잡는 역작” - 「커커스 리뷰」

태어날 때부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겨우 살던 소녀에게 갑자기 생긴 여동생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엄마는 매일 약과 술에 절어 있고 그 곁에서 떠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남자들을 어린 두 눈으로 모두 지켜보면서 도망치지 못했던 새디는 아빠가 달라서 눈 색깔도, 머리카락 색깔도, 얼굴 골격도 모두 다른 동생 매티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두 딸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던 엄마는 결국 새디가 열여섯 살이던 어느 날, 아무 전조도 없이 훌쩍 집을 나가버렸고 그 때부터 새디는 매티의 부모가 되었다. 힘들었지만 매티만은 조금이나마 정상적으로, 다른 집 소녀들처럼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려던 새디의 애타는 너무나 허망한 결말로 이어지고 말았다. 겨우 열세 살, 어린 매티가 갑자기 사라지고 3일 뒤 새카맣게 타버린 시체로 돌아온 것이다. 그 날 이후 새디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매티를 그렇게 만들고도 법의 심판도 받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숨쉬는 살인자, 그를 찾아서 직접 처단하는 것이다.

소설은 동생을 처참하게 짓밟고 살해한 자가 누구인지 아는 새디가 혼자서 그를 찾아 나서면서 겪는 일들과, 두 자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기자가 팟캐스트를 통해 새디의 추적을 뒤따라가며 기록하는 두 가지 시선으로 구성된다. 가볼 만한 여행지를 추천하는 소규모 방송에 프로듀서로 일하던 웨스트 맥크레이는 취재에 나섰다가 인구가 800명 남짓한 콜로라도 작은 마을, 콜드크릭에 우연히 들른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늘 하던 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분위기를 묻던 웨스트는 트레일러를 집으로 삼아 살아가던 어린 자매 중 한 명이 잔인하게 목숨을 잃고 뒤이어 그 언니가 실종된 사건에 대해 듣게 된다. 마을에서 떨어진 폐교에서 매티를 성폭행하고 건물에 불을 질러 범행 흔적을 없애버린 살인자가 누구인지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최근에 갑자기 새디가 사라진 것과 분명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새디는 복수를 하러 나선 것이 분명했다.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만든 웨스트는 그 때부터 새디가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뒤따라가면서 홀로 궁지에 몰린 새디를 찾아보기기로 한다.

매티와 새디의 어머니는 십대 시절부터 술과 마리화나에 손대다가 코카인 중독이 된 후부터 만나거나 다름 없었다고 주민 모두가 이야기했다. 새디는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 어머니가 데려온 남자들에게 어릴 때부터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매티가 열 살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던 키스라는 남자가 비정상적인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새디가 곧바로 알아챌 수 있었던 것도 다 지우고 싶은 술한 경험에서 나온 눈치였다. 어머니가 키스와 함께 두 자매만 두고 집을 나가버렸을 때, 새디는 한 편으론 안심했다. 최소한 키스의 더러운 손길에서 동생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아직 어린 매티는 자식을 버린 어머니를 잊지 못했다. 매일 눈물로 지새며 어머니를 기다리고, 분명히 돌아올 거라는 희망도 버리지 않았다. 4년 가까운 세월을 매티의 언니가 아닌 어머니로 열심히 동생을 보살폈지만 매티의 그 상실감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키스가 홀로 자매가 사는 트레일러에 나타났다. 새디가 자신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키스는 새디 몰래 매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행방을 묻는 매티에게 로스앤젤레스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자신이 데리고 가주겠다고 이야기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전해들은 새디는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매티의 눈빛은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새디는 뱀처럼 교활한 키스의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자식을 버리고 간 어머니를 찾아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매티는 달랐다. 동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생각에 새디는 키스를 따라 나서겠다는 매티를 뜯어 말렸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마을 목격자들이 진술한 것처럼 사건 당일 새벽, 새디 몰래 집을 빠져나간 매티는 어디선가 나타난 까만 트럭에 올라탔고 이를 뒤 썰렁하게 불탄 시체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현장이 훼손되어 범인의 DNA나 다른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는 변명만 앞세운 채 매티 사건을 흐지부지 넘기려고 했다. 새디로서는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웨스트 맥크레이는 여덟 편으로 나뉜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두 자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주변 인물들과의 인터뷰와 취재 결과를 종합하여 꼼꼼하게 전한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버려진 차량 한 대와 그 속에 남겨진 새디의 물건들을 첫 번째 단서로 삼아 발자취를 쫓기 시작한 웨스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새디와 만나 단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강렬한 인상을 지우지 못했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초체한 소녀가 가족사진 한 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 남자 아세요? 제가 이 사람 딸인데요.”라고 묻고 다니는 모습에는, 비록 속에 썩어 썩어 집약된 극심한 분노와 증오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결연한 눈빛을 모두가 잊지 못했다. 과연 새디는 흉악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세상이 지키지 못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길에 나선 새디의 고투를 제 3자의 시선으로도 지켜볼 수 있는 독특한 구성의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코트니 섬머스(Courtney Summers)는 열여덟 살에 쓴 첫 번째 소설 Cracked Up to Be로 2009년에 CYBIL 상 YA 부문을 수상했다. 그 밖에도 『What Goes Around』, 『This is Not a Test』, 『Fall for Anything』, 『Some Girls Are』를 발표했다.